

海平鄉校記 善山

古者家有塾黨有序地無不教人無不學逮叔世學校之政陵夷庠序之制始隳矣我朝文治炳蔚州府
고자가유숙훈유서지무불교인무불학체숙세학교지정릉이상서지제시휴의아조문치명울주부
 郡縣莫不有學海平爲善山附縣例不置校距府學涉大川二十里許學徒病其來往今府使李公吉培
군현막불유학해평위선산부현례불치교거부학섭대천이십리허학도병기래왕금부사이공길배
 莅政一年弊祛利興百度俱新府之館宇樓池咸得理葺役不及民材不取山府人神之一日又鄉先生
리정일년폐거리흥백도구신부지관우루지함득리증역불급민재불취산부인신지일일우향선생
 張贊等百餘人詣府請以廢寺之材之瓦起校於縣府使君喜輒轉報監司李公繩直竟得啓 聞蒙
장운등백여인에부청이폐사지재지와기교어현부사군희첩전보감사이공승직경득계 문몽
 允牒下鄉父老皆喜各出家丁共若于赴功不數月而成其制聖殿三楹謹釋奠也東序三楹便講廳也
윤첩하향부로개회각출가정공약우부공불수월이성기제성전삼영근석전야동서삼영편강청야
 西序三楹冬煖居也南樓五間夏涼處也若厨若庫亦無不備而繚以垣墻既又明年再聞取旨築池其
서서삼영동욕거야남루오간하량처야약주약고역무불비이료이환장기우명년재문취지축지
 池堤下灌漑利及於民亦不細矣使前教導金英發生員吉久爲之學長學徒四十餘生居止受業詩書
지제하관개이급어민역불세의사전교도금영발생원길구위지학장학도사십여생거지수업시서
 之教大興昔文翁之治蜀郡輝映史策厚人倫美風俗之道捨學校將何求人請之太守成之其與蜀
지교대흥석문옹지치축군휘영사책후인윤미풍속지도사학교장하구부인청지태수성지기여축
 郡并美矣工曹參議朴君瑞生以其鄉也語之詳遂爲之記

海平鄉校記

善山(善山)에 딸린 고을로 향고는 해평(海平) 북쪽 一 리허에 있다 옛날부터 집에는 글방이 있

고 마을의 크고 점음에 따라서 학교를 두었으니 어느곳에서고 가르침이 없던 곳이 없었고 매우
 지않은 사람이 없었다 말세를 당하니 학교에 대한 정사가 게을러지고 학교의 제도가 무관하여
 졌도다 우리나라는 문치(文治)를 하는 나라로서 주나 부(州府)에는 늘로써 임신양명한 사람이
 많았으니 군과 현(郡縣)에는 학교가 없던 곳이 없었다 해평 고을의 선산에 불의 작은 현으로서
 전부터 학교가 없어 학교를 가려면 큰 내를 건너서二十리가야 하니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
 라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부사(府使)로 도임한 이공(李公) 길배(吉培)는 정무를 담당하지
 一년동안 아니되어 모든 폐단을 일소하고 부민을 잘 다스리어 백가지 일이 모두 혁신되었다 부의
 관아며 누각이며 연못 등을 모두 일신하게 손질하였으니 부민으로부터 노역(勞役)을 징발하지
 않았으며 재목도 산에서 새로 베이지 않았으니 주민들이 신기하게 여겼다 어느날 그 고을선생
 장운(張贊) 등 백여명이 부사를 찾아와서 절을 벌인 기와와 재목이 있었으니 그 재목과 기와를 가
 지고 해평에 향교(鄉校)를 세워달라고 청하는지라 부사는 참 좋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감사(監司)
 — 지금의 도지사(李繩直)에게 보고를 하였더니 이공이 곧 장계를 올려 임금의 언화(允
 許—허락)가 내리었다 그 고을 학부형들이 다 크게 기뻐하고 집집마다 장정들을 내어보내 힘입어 합
 쳐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몇 달이 지나서 제도에 맞도록 성전(聖殿)을 이루하였으니 三칸의
 성전(聖殿)으로 선성(先聖)을 제사하는 곳이고 동쪽의 三칸의 학문을 강칭(講廳)하는 곳이고 서
 쪽 三칸의 온돌(溫突)방이요 남쪽에 있는 누(樓) 五칸의 여름에 거처하는 곳이다 또 부엌이며
 창고 등 갖추지 않은 곳이 없고 담을 쌓아 깨끗하게 다듬어 놓았다 이듬해에 다시 주민들이 뜻